

#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물가 체감 추이

박진아 부연구위원

정부는 2012년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의 대상 계층 및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영유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여왔다. 본고에서는 2012-2013년 동안 확대된 육아지원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주요 육아품목을 대상으로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물가수준과 가격 변동에 대한 체감지수의 변화를 분석하고, 2016년 현재 영유아 가구가 지출하는 양육비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기관 이용 시간과 가구특성에 따른 비용지원설계 보완, 2) 자녀 출생순위와 소득계층을 고려한 양육수당 정책의 전환,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 1. 서론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이러한 초저출산 상태가 200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의 대상 계층 및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영유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필수예방접종의 국가부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육아지원설계의 다양화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여왔다.

이는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주 원인<sup>1)</sup>인 양육비 부담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대응한 결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의 보편적 지원 확대는 2012~2013년 전국가구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연간 목표를 밑도는 1~2%대로 유지하여 물가관리 목표가 달성되는 긍정적 정책효과를 보였다(통계청, 2013a, 2013b, 최윤경 외, 2013:7 재인용)<sup>2)</sup>. 그러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육아품목은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외에 종류가 다양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표방하여 매해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물가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로 수행한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Ⅳ)」(박진아·김나영·이재희·장문영, 2016)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이삼식 외, 2015), 유배우여성(15~34세)의 1자녀 출산 후 단산 이유로 자녀양육비 부담(24.3%), 자녀교육비 부담(22.3%), 일-가정양립곤란(14.7%) 순으로 나타남.  
2) 최윤경·박진아·이세원(2013). KICCE 육아물가지수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7.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6년 현재 영유아 가구가 지출하는 양육비 현황과, 주요 육아품목을 대상으로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물가수준과 가격 변동 체감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2012-2013년 동안 확대된 육아지원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의 회상조사(n=1,010)와 한 달 동안의 가계부조사(n=309)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응답자의 자녀 연령은 첫째아를 기준으로 0세 18.3%, 1세 11.8%, 2세 14.1%, 3세 12.5%, 4세 11.8%, 5세 12.3%로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초등 자녀가 있는 가구도 19.2% 포함되었고, 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소득은 월 평균 488만원이다.

## 2.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1,419 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의 가계지출 현황을 조사하고 영유아 품목을 중심으로 1년 동안

### 가. 영유아 가구의 가계지출 현황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출 분류에 따라 월 평균 지출 비용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표 1 참조), 전체 분석대상 1,419 가구

〈표 1〉 가계 지출 분류에 따른 월 평균 지출액

단위: 만원, %, (명)

분류	월 평균 지출액	표준편차	가계지출 대비 비중	소비지출 대비 비중
01. 식료품·비주류음료	52.2	43.6	10.7	22.0
02. 주류 및 담배	8.7	26.5	1.8	3.7
03. 의류 및 신발	15.0	18.7	3.1	6.3
0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21.2	25.4	4.4	8.9
05. 가전용품 및 가사 서비스	19.1	83.6	3.9	8.1
06. 보건	11.9	25.1	2.4	5.0
07. 교통	46.7	313.9	9.6	19.7
08. 통신	15.6	13.8	3.2	6.6
09. 오락 및 문화	13.6	20.6	2.8	5.7
10. 교육	27.6	50.2	5.7	11.6
11. 음식 및 숙박	24.4	26.1	5.0	10.3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8.2	47.1	3.7	7.7
소비지출 계	237.2	179.0	48.7	100.0
13. 비소비지출	87.4	93.9	18.0	
14. 저축성지출	162.0	182.3	33.3	
가계지출 계	486.6	320.4	100.0	
사례수	(1,419)			

주: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제시된 항목별 평균값의 비율임.

의 월 평균 가계지출은 486.6만원, 소비지출은 237.2만원, 저축성 지출은 16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지출 분류에 따라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가 52.2만원, 교통 46.7만원, 교육 27.6만원 순서로 조사되었다. 가계지출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비용이 포함되어있는 교육 비목의 지출 비중이 전체 가계 지출의 5.7%를 차지하고 어린이집 비용과 돌봄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목의 지출 비중이 3.7%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계지출 분류에 따른 월 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표 2 참조), 가계지출은 첫째 자녀 발달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첫째 자

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소비지출은 유의미하게 첫째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분류에 따라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오락 및 문화, 교육 부분 지출이 첫째 자녀 발달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 비목의 지출은 첫째 자녀 연령에 따라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비용과 돌봄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목의 경우 신생아기의 지출액이 23.6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교통과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부분 외에 모든 부분에서 소득에 따라 지출

〈표 2〉 첫째 자녀 발달시기별 가계지출 분류에 따른 월 지출액 비교

단위: 만원, %, (명)

분류	신생아기 (0~12개월)	영아기 (13~30개월)	유아기1 (31~48개월)	유아기2 (49~80개월)	초등	F
01. 식료품·비주류음료	44.5	54.4	49.2	52.6	57.6	2.91*
02. 주류 및 담배	6.7	8.2	7.9	8.4	11.8	1.33
03. 의류 및 신발	13.3	17.4	15.4	13.5	15.8	2.23#
0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22.5	20.8	19.3	19.8	24.9	2.27#
05.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20.2	17.6	17.4	26.1	10.3	1.5
06. 보건	11.1	11.5	11.7	11.9	12.8	0.17
07. 교통	20.6	56.9	40.8	58.8	40.2	0.59
08. 통신	15.7	16.0	15.1	14.6	16.9	1.32
09. 오락 및 문화	9.1	13.2	14.4	14.7	14.1	2.57*
10. 교육	6.5	11.1	20.0	34.7	52.3	38.81***
11. 음식 및 숙박	24.8	25.3	22.4	24.7	24.8	0.53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23.6	14.8	16.5	20.8	15.6	1.54
소비지출 계	189.4	226.6	227.2	245.5	273.6	6.73***
13. 비소비지출	84.2	89.8	86.8	86.7	89.0	0.12
14. 저축성지출	168.2	55.7	168.6	178.7	130.7	3.19*
가계지출 계	441.9	472.1	482.6	510.9	493.3	1.65
사례수	(174)	(253)	(276)	(440)	(276)	(1,419)

#  $p < .1$ , \*  $p < .05$ , \*\*\*  $p < .001$

〈표 3〉 소득수준별 가계지출 분류에 따른 월 평균 지출액

단위: 만원, (명)

분류	200만원이하	200~550만원이하	550만원 초과	F
01. 식품·주류·비주류음료	34.7	47.5	66.6	35.03***
02. 주류 및 담배	4.9	7.0	13.6	9.67***
03. 의류 및 신발	6.5	12.6	22.1	46.28***
0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6.7	19.8	25.3	8.00***
05.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7.0	17.2	25.8	2.33#
06. 보건	6.6	10.4	16.4	9.92***
07. 교통	15.0	47.6	50.4	0.41
08. 통신	10.6	15.0	17.8	11.00***
09. 오락 및 문화	4.6	11.8	19.4	27.17***
10. 교육	10.8	23.4	40.7	21.73***
11. 음식 및 숙박	14.0	22.1	31.7	26.44***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1.6	17.7	20.7	1.38
소비지출 계	128.1	205.7	331.4	95.12***
13. 비소비지출	38.3	73.4	129.5	66.62***
14. 저축성지출	88.1	134.4	240.7	58.62***
가계지출 계	254.5	413.5	701.6	165.49***
사례수	(74)	(944)	(401)	(1,419)

#  $p < .1$ , \*\*\*  $p < .001$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모든 비목의 월 평균 지출액이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 나. 영유아 가구 양육비 지출 현황<sup>3)</sup>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조사 결과(표 4 참조), 월 평균 양육비는 94.4만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19.3%, 가계지출 대비 21.7%를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육비 지출 규모만으로는 유아기2(49~80개월) 그룹이 98.2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영아기(97.5만원), 유아기1(95.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 비중으로 살펴보면, 첫째아가 초등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득의 16.7%를 양육비로 지출해 소득대비 지출 비중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고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1, 유아기2 자녀 가구 모두 소득과 비교하여 모두 19~21% 정도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양육비 지출 규모로 비교하면, 200만원 이하 그룹에서 월평균 지출하는 양육비는 50.8만원, 200만원~550만원 이하 그룹 82.9만원, 550만원 초과 그룹 12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소득대비 지

3)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은 회상방식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육아품목에 회상기간을 제시하여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고, 가계부 조사는 한달 동안 가구에서 지출하는 모든 품목과 지출대상을 조사하여 영유아 자녀만을 위해 소비하는 품목으로 양육비 지출 현황을 분석함.

〈표 4〉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양육비(A)		가계지출(B)		소득(C)		양육비 비중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B	A/C	
전체	94.4	86.6	435.3	478.6	488.0	291.7	21.7	19.3	(1,419)
첫째아 월령									
신생아기(0~12개월)	87.3	79.8	399.3	257.9	455.9	243.6	21.9	19.1	( 174)
영아기(13~30개월)	97.5	89.7	432.6	518.2	482.9	234.4	22.5	20.2	( 253)
유아기1(31~48개월)	95.9	79.4	410.0	320.1	459.2	229.0	23.4	20.9	( 276)
유아기2(49~80개월)	98.2	87.2	459.0	587.4	494.2	235.9	21.4	19.9	( 440)
초등 이상	88.7	93.9	449.1	492.3	531.8	454.2	19.8	16.7	( 276)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0.8	48.3	214.1	135.2	175.3	40.4	23.7	29.0	( 74)
200만원~550만원이하	82.9	70.2	380.5	466.8	385.0	95.4	21.8	21.5	( 944)
550만원 초과	129.0	112.5	602.0	499.6	788.3	382.5	21.4	16.4	( 401)

주: 1) 가계부 조사 데이터에서 1회성 지출 중 돌/백일 위탁비용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함.  
 2) 가계부 조사의 양육비는 가구공동 지출을 제외한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 지출 항목만으로 산출함.  
 3) 회상방식의 양육비 조사 품목은 130여개의 품목에 대해 회상기간을 주고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고 제시된 품목에 속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출 비용은 비목별로 기타 항목을 두어 조사함. 양육비용에 포함된 육아품목은 박진아 외(2016)의 부록 조사표 참고.

출 비중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200만원 이하)의 양육비 지출 비중은 소득 대비 29% 수준인 반면 고소득층(550만원 초과)은 16.4%로 나타나 소득이 적을수록 양육비 지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만 양육할 때 지출하는 양육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가구 중 영유아 자녀가 1인인 가구와 영유아 자녀가 2인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 지출하는 양육비를 분석하였다.

영유아 자녀가 1인인 조사대상의 평균 소득은 472.6만원으로 전체 조사대상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영유아 1인을 양육하는 데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87.8만원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영유아 자녀 1인의 양육비는 자녀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자녀의 연령이 13~30개월인 경우 월 평균 양육비가 94.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생아기(0~12개월) 86.7만원, 유아

기2(49~80개월) 84.9만원, 유아기1(31~48개월) 83.2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지출하는 양육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지출하는 양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소득(171.8만원) 중 양육비 비중은 29.6%인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 비중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가 2인인 조사대상의 평균 소득은 489.3만원으로 전체 조사대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영유아 2인을 양육하는 데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106.6만원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영유아 자녀 2인의 양육비는 자녀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첫째 자녀의 연령이 13~30개월인 경우 월 평균 양육비가 113.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아기1(31~48개월) 109.6만원 신생아기(0~12개월) 105.4만원,

〈표 5〉 영유아 자녀 1인 가구의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양육비(A)		가계지출(B)		소득(C)		양육비 비중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B	A/C	
전체	87.8	81.5	407.4	367.7	472.6	222.2	21.6	18.6	(675)
자녀 연령									
신생아기(0~12개월)	86.7	78.5	393.4	247.8	450.7	235.9	22.0	19.2	(168)
영아기(13~30개월)	94.2	89.9	412.6	492.2	484.3	229.8	22.8	19.5	(205)
유아기1(31~48개월)	83.2	72.6	430.4	385.6	466.1	202.6	19.3	17.9	(149)
유아기2(49~80개월)	84.9	81.8	392.7	242.9	487.4	214.5	21.6	17.4	(153)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0.8	54.2	204.6	79.0	171.8	39.8	24.8	29.6	( 37)
200만원~550만원이하	77.6	72.1	360.7	374.3	387.8	95.5	21.5	20.0	(455)
550만원 초과	120.8	97.3	565.5	334.7	744.3	221.8	21.4	16.2	(183)

주: 1) 가계부 조사 데이터에서 1회성 지출 중 돌/백일 위탁비용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함.  
 2) 가계부 조사의 양육비는 가구공동 지출을 제외한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 지출 항목만으로 산출함.  
 3) 회상방식의 양육비 조사 품목은 130여개의 품목에 대해 회상기간을 주고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고 제시된 품목에 속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출 비용은 비목별로 기타 항목을 두어 조사함. 양육비용에 포함된 육아품목은 박진아 외(2016)의 부록 조사표 참고.

〈표 6〉 영유아 자녀 2인 가구의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양육비(A)		가계지출(B)		소득(C)		양육비 비중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B	A/C	
전체	106.6	88.4	454.7	466.5	489.3	257.1	23.4	21.8	(441)
첫째자녀 연령									
신생아기(0~12개월)	105.4	116.8	560.5	463.7	600.8	410.6	18.8	17.5	( 6)
영아기(13~30개월)	113.4	88.0	522.0	619.9	477.0	255.7	21.7	23.8	( 48)
유아기1(31~48개월)	109.6	84.6	383.9	215.3	456.0	260.6	28.5	24.0	(122)
유아기2(49~80개월)	104.2	89.9	472.4	514.6	504.4	251.3	22.1	20.7	(265)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9.5	45.9	229.0	223.7	181.7	40.9	26.0	32.7	( 25)
200만원~550만원이하	94.8	75.3	383.1	417.6	379.8	95.7	24.7	25.0	(287)
550만원 초과	140.9	108.7	649.4	533.8	792.6	261.5	21.7	17.8	(129)

주: 1) 가계부 조사 데이터에서 1회성 지출 중 돌/백일 위탁비용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함.  
 2) 가계부 조사의 양육비는 가구공동 지출을 제외한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 지출 항목만으로 산출함.  
 3) 회상방식의 양육비 조사 품목은 130여개의 품목에 대해 회상기간을 주고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고 제시된 품목에 속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출 비용은 비목별로 기타 항목을 두어 조사함(양육비용에 포함된 육아품목은 박진아 외(2016)의 부록 조사표 참고).

유아기2(49~80개월) 104.2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자녀 1인 가구의 양육비 지출에 비해 영유아 자녀가 2인인 경우 전체 양육비는 늘

어나나, 자녀 1인당 지출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영유아 부모의 육아물가 체감 추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육아 대표 품목 21개(소비재 9개, 내구재 6개, 서비스 6개)에 대해 품질 대비 가격수준에 대한 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3개 항목에 대해 질문<sup>4)</sup>하여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육아물가 체감지수를 산출하였다. 지난 4년간의 육아 소비재에 대한 물가체감지수를 살펴보면(표 7 참조), 육아소비재 가격에 관한 3개 지표에서 모두 2015년에 비해 지수가 약간 상승하여 부정적 체감이 증가하였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소비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육아소비재 중에서도 필수재라 할 수

있는 분유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의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 3개 지표 모두 수치가 하락하여 최근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에 따른 효과를 체감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육아 내구재 6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에 대한 지난 4개년의 체감지수를 보면(표 8 참조), 3개 부문에 대한 체감지수가 모두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내구재 가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보다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지수 모두 2013-2015년 기간 동안 모든 지수가 하락하여 부정적 체감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16년 들어 지수가 증가하여 부정적 체감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표 7〉 2013-2016 육아 소비재 물가체감지수

단위: 점

품목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우유	126.3	130.8	124.4	127.7	99.3	100.3	94.2	92.6	149.3	125.5	114.4	118.4
분유	146.0	150.8	147.0	144.9	137.1	140.9	140.2	137.1	148.7	129.1	119.6	114.2
이유식	141.2	143.5	140.4	144.5	126.2	128.3	124.8	133.6	144.5	126.4	117.8	126.2
기저귀	139.6	140.6	134.4	138.5	134.5	136.4	129.9	131.6	144.7	122.4	119.6	121.7
영양제	126.7	137.8	138.9	139.7	113.2	129.7	131.3	131.2	131.5	121.1	120.2	120.8
물티슈	112.2	110.0	107.2	108.0	102.2	97.3	96.7	96.1	127.5	111.4	110.2	109.1
내의류	119.0	116.2	115.2	113.8	113.1	108.1	108.5	106.8	133.5	115.4	114.8	115.5
겂옷	144.1	141.8	139.1	139.6	141.6	140.5	137.7	140.0	151.0	130.0	128.3	132.3
완구류	157.8	162.2	161.5	161.4	150.9	153.3	154.1	152.9	158.6	140.3	140.6	141.8
종합지수	136.2	138.4	133.9	135.5	126.2	127.8	124.3	124.4	144.6	124.2	118.8	119.6

주: 1) 자산산출 예: 가격체감지수=(매우비싼편응답수\*1.0+조금비싼편응답수\*0.5+적당응답수\*0-조금싼편응답수\*0.5-매우싼편응답수\*1.0)/응답가구수\*100+100  
 2) 각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즉 가격이 비싼편, 가계에 부담이 되는 편, 가격변동이 큰 편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종합지수는 KICCE 육아물가지수 품목별 비중에 의해 가중평균한 결과임.

4) 가격체감 질문: 육아품목의 가격이 품질/성능 대비 싸다고 혹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계부담 질문: 다음 품목의 지출이 귀 덕의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가격변동체감 질문: 각 품목의 최근 3개월간 가격변동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표 8〉 2013-2016 육아 내구재 물가체감지수

단위: 점

품목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카시트	141.5	151.1	149.7	150.7	143.7	147.8	146.0	147.6	145.0	136.0	130.0	135.1
유모차	150.1	162.1	158.4	162.6	147.8	156.0	152.4	155.0	150.1	141.7	133.5	137.6
아기띠	139.1	143.9	143.6	145.5	127.4	129.1	128.3	128.3	139.9	132.4	125.2	128.8
놀이방 매트	146.7	153.9	152.8	154.5	134.8	139.1	139.6	140.7	141.6	131.8	128.5	129.6
자전거	146.7	148.4	146.5	146.4	133.4	138.7	137.1	134.4	144.5	134.7	130.5	130.3
교재교구/책	152.2	159.0	157.2	158.1	149.9	149.7	148.9	145.0	146.6	142.2	142.0	140.7
종합지수	148.8	157.1	155.0	156.8	145.7	148.8	147.2	146.3	146.5	139.7	135.9	137.4

주: 1) 지수산출 예: 가격체감지수=(매우비싼편응답수\*1.0+조금비싼편응답수\*0.5+적당응답수\*0-조금싼편응답수\*0.5-매우싼편응답수\*1.0)/응답가구수\*100+100  
 2) 각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즉 가격이 비싼편, 가계에 부담이 되는 편, 가격변동이 큰 편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종합지수는 KICCE 육아물가지수 품목별 비중에 의해 가중평균한 결과임.

〈표 9〉 2013-2016 육아 서비스 물가체감지수

단위: 점

품목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돌/앨범	169.6	179.0	174.9	176.6	167.4	172.0	169.0	170.8	159.0	153.2	145.2	149.6
산후조리원	174.0	178.3	173.8	175.2	178.5	180.3	178.9	181.6	168.6	159.0	148.9	157.6
학원	145.5	152.0	148.2	152.0	145.3	146.3	144.1	145.6	144.8	142.8	138.3	141.5
어린이집	128.5	121.5	121.6	123.5	121.4	115.0	117.4	117.1	132.9	125.6	125.0	127.9
유치원	128.4	134.5	125.2	128.2	127.0	133.1	124.9	128.3	135.4	133.8	130.8	133.1
보험	142.5	146.2	147.5	149.6	137.5	136.5	138.0	138.7	145.4	138.7	137.2	143.4
종합지수	138.0	138.7	141.9	138.1	134.2	133.6	133.5	133.6	140.8	135.2	132.4	136.3

주: 1) 지수산출 예: 가격체감지수=(매우비싼편응답수\*1.0+조금비싼편응답수\*0.5+적당응답수\*0-조금싼편응답수\*0.5-매우싼편응답수\*1.0)/응답가구수\*100+100  
 2) 각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즉 가격이 비싼편, 가계에 부담이 되는 편, 가격변동이 큰 편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종합지수는 KICCE 육아물가지수 품목별 비중에 의해 가중평균한 결과임.

육아 서비스 품목 6개에 대한 4개년도 비교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가격체감지수는 2013년 138.0에서 2015년 141.9로 증가하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가 2016년 138.1로 감소하고, 가격변동체감지수는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증가하여 부정적 응답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9 참조). 가계부담지수는 2014년 133.6으로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상태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품목의 경우 1회성 지출 비용이 높은 돌/앨범, 산후조리원의 경우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 모두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체감정도는 소비재와 내구재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으로 비용지원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가격체감지수는 2013-2015년 기간 동안에 지

수가 하락하여 가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 비율이 감소한 반면 2016년 다시 상승하여 가격체감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가계부담 정도는 2013년 지수 산출 이후 어린이집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다소 감소하고 유치원 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의 부정적 응답은 2015년에 비해 2016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두 서비스 품목 모두 영유아 가구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 및 양육수당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연간 변화를 살펴보면(표 10 참조), 비용지원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추세를 알 수 있다. 특히, 양육수당 지원의 만족도지수는 2015년 이후 100보다 낮게 나타나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비스이용 만족도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6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영유아 부모의 육아품목에 대한 3개(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부문 체감지수를 소비재(9개), 내구재(6개), 서비스(6개) 품목별로 산출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3-2015년 기간 동안 가격체감과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감소한 것에 비해 2016년의 체감지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부문별로 통합적으로 산출한 체감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 소비재의 경우 2013-2016년 기간 동안에는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3개 부문 모두에서 체감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과 2016년의 가격변동체감지수를 비교해 보면 144.6에서 119.6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육아 내구재의 경우, 2013-2016년 기간 동안에 가격체감지수는 2014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후 2016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변동체감의 경우는 반대로 2014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16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육아서비스의 경우 2013-2016년 기간 동안에는 가격변동체감지수와 가격체감지수는 소

〈표 10〉 2013-2016 비용지원 및 서비스 만족도지수

단위: 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치원 비용지원	118.5	104.1	111.8	106.2
어린이집 비용지원	127.0	123.3	124.3	117.6
양육수당 지원	106.7	102.3	95.9	86.8
유치원 서비스이용	133.1	134.2	140.0	140.2
어린이집서비스이용	135.8	138.5	143.3	140.6

주: 1) 만족도지수=(매우만족응답수\*1.0+대체로만족응답수\*0.5+보통응답수\*0-대체로불만족응답수\*0.5-매우불만족응답수\*1.0)/응답 가구수\*100+100.  
 2)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 즉 100보다 큰 경우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폭의 등락을 보여주었고, 가계부담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육아품목 중 대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지원 및 이용에 대한 2016년(9월) 만족도지수 산출 결과에 따르면, 비용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201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동기간 비교 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수 추이는 직접적인 비용지원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보다는 서비스 질과 내용의 향상을 통한 만족도가 더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비용지원보다 기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함을 시사한다.

여전히 육아품목의 가격체감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 영유아 가구는 전체 소득의 20% 정도를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만을 위해 소비하는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에 대한 월 평균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양육비는 94.4천원으로 나타났고,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87.8천원, 2명인 가구는 106.6만원(자녀 1인당 53.3만원)으로 나타나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지출 총액은 늘어나 자녀 1인당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서비스 비용 지원 정책을 기관 이용 시간과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으로 보완하여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 동안의 기관 이용 비용 지원을 통한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기관 이용과 미이용자 간의 지원 비용 차이로 인해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손해라는 인식으로 불필요한 수요를 발생시켰다. 또한 서비스 기관 이용 비용보다 양육수당 금액이 적어 이는 기관 미이용자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을 자녀의 출생순위와 소득계층을 고려한 설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수당 정책은 차등지원에서 보편지원으로 확대 도입되면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이란 정책 목표가 약화되고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영유아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닌 소득계층과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기관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보다는 서비스 질과 내용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2013-2016년 기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기관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기 육아지원정책의 설계를 비용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가구의 소비패턴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과 서비스 품목이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가구가 합리적으로 소비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